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30

저는 7 월 11 일부터 미국에 와 있습니다.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일본인이나 재미일본인 그리고 미국인 교회에서 총 9 회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난달 일본에서 출판된 「유랑의 교회」를 미국에서도 출판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이 지진 재해 후 첫 방문이라서 실로 많은 분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삼 느낀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의 홈페이지를 보고 게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한 직후부터 잇따른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필사적으로 암중모색하고 있었을 때 고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대지진 재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 점점 현실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돌연 인터넷 선이 우리들을 세계와 연결시켜주었습니다.

이 일기는 저희 교회가 속해있는 단체에 의장앞으로 제가 보낸 긴급 기도요청 메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모든 보수 침례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국경까지도 넘어서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상상도 못하던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실감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지진 재해의 와중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어쨌든 필사적이었을 때 블로그를 통해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은 주목하며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소식은 당시 우리들이 직면한 믿을 수 없는 지진 재해의 현실과 병행되어 그 소식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그 때 교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형제에게서 피크에 달할 때는 액세스가 하루에 20 만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 소식으로 저희들을 격려를 받았으며 마음까지도 푸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으며 외톨이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여 돌아보는 중에 그것이 정말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본인과 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만나 뵈었습니다」라고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지진 재해 직후에는 하루 하루를 살아가기에도 벅찬 날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투쟁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인가에 홀린 것 같이 펜 잡을 틈만 있으면 PC 를 향해 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격동의 하루 하루의 기록을 바로 지금 체험하는 이 시점에서 써 두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한 속도와 에너지로 모두 삽시간에 변해가는 이 이상한 시간의 흐름속에서 차례 차례 잊혀지고 말 것이라는 마치 공포와도 같은 강박관념에 사리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써 두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으로 변해 마치 제 직무인 양 그날 그날 저를 책상 앞에 다가앉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떨어지고 있었으며 무엇때문에 울었고 어떻게 낭패를 당했는지 왜 그렇게 기뻐했었는 지를 지금 현 시점에서 아픔과 기쁨을 느끼면서 기술해 놓지 않으면 모두가 잊혀져버릴 것이라고 직관하며 초조해하던 것은 착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 또하나의 이유는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저희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면서 지켜봐 주시는 아주 많은 분들의 존재였습니다.

저희들을 주목하시는 분에 의해 무대가 구성되었고 그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구경거리로써가 아니고 또한 정말 무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은 편 세계에서 저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와 같이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는 많은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마치 세상 끝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어느새 저희들도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있는 미국의 대지에서 이렇게 많은 일본인과 미국인이 저희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지에 사는 분으로부터 지진 재해후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와 많은 의연금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하이치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제 자신의 경우는 어떠했는가고 생각하니 부끄러워졌습니다. 단지 뉴스를 듣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것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여 그를 위해 기도회를 열어 눈물로 기도를 했던가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 장 13 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 라며 그리스도의 괴로움에 함께 관여하는 경험을 기쁨으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괴로움을 서로 나누며 저희와 괴로움을 함께 하려고 애쓰시는 참으로 많은 분들의 출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동일본 대지진 재해가 16 년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재해와 다른 경위를 거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진재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현상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현장의 생생한 소리로 피해지역에서 고뇌하며 아파하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직접 전하기 시작한 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출현과 어우러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스함을 느끼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지원하는 현상이 확대 되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 풀 뿌리는 먼 바다를 넘어서 미국의 대지에까지 닿아있었습니다. 지진 재해 직후의 한통의 기도 요청 메일이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되어 우리들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날의 거대한 해일에도 결코 뒤지지않는 기세로 저희들 앞에 돌연히 나타나 저희를 감싸며 치유하고 덮어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